

문화

■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기획 박창수 씨

행복한 책임기

돈 드릴로 '마오II' <창비>

테러는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이 시대에 테러는 사람 대 사람, 혹은 국가 대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마오II'의 주인공인 빌 그레이는 "테러가 곧 우리 시대의 서사이자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 마디로 오늘날의 지식인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호밀밭의 파수꾼'의 작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는 빌 그레이의 모델이 되는 인물이다. 그는 '사라진 작가들' 중 한 명인 자신을 찾아 뉴욕 주 스테이트까지 온 사진기자에게 손사래를 치는 뒷모습이 찍혀 뉴욕타임스에 실린다. 이는 대중이나 군중으로 명명할 수 있는 집단주의를 거부하는 개인주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집단은 매스

고 할 수 있고 호메이니도 '마오'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마오'는 이미지이다. '빌 그레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빌 그레이'는 다만 '셀린저'처럼 뒷모습이 찍히지 않고 아주 사라지기 위해 브리타의 카메라 앞에서 서는 것이 다를 뿐이다. 빌 그레이가 사라진 곳은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가는 선상이다. 테러리스트에게 납치, 감금된 유럽의 젊은 시인의 몸과 자신의 몸을 바꾸기 위해 가는 길이었으나 그는 신분증까지 도둑맞음으로써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예술가의 자리가 그만큼 위태롭다는 말이다. 또한 빌 그레이의



마오II

“미래는 군중의 것이다”

미디어와 지나친 이미지와 집단주의의 노예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아돌프 히틀러는 “거대한 집단들은 어느 강요보다 화려한 문제에 더 잘 따른다”고 했다.

그렇다면 소비주의와 감각주의의 노예로 전락한 이 시대에 소설의 서사는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때문에 프롤로그의 통일과 집단결혼식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의미심장한 것이다.

'마오II'의 마오는 노예적인 집단주의를 이끌어내는 대표적인 표상이다. 마오 시절 중국의 인민들은 누구나 '마오 췌뚱 어록'을 가지고 다녔고 그 책은 인민들의 신념이었다. 이것이 그 시절 중국의 서사였다. 조지 하다는 빌 그레이에게 말한다.

어느 곳이나 '마오'는 존재하고 또 '마오'를 따르는 무리는 있다.

통일과 총재 문선명도 '마오' 같은 존재라

말처럼 소설가들과 테러리스트들과는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테러리스트가 얻는 걸 소설가들은 잃으니까. 대중의 의식에 그들이 영향을 미치는 크기는 감성과 사상의 형성자로서 우리가 최락하는 정도와 같으니까."

이는 조지 하다는 빌 그레이가 한 말이다. '마오 II'의 프롤로그 마지막 문장도 "미래는 군중의 것이다."라고 했다.

남은 탱크를 개조한 꽃가마에 신랑신부가 타고 있다는 것이 다 르기는 하지만 결혼식은 예뻐보이더라도 나온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옮긴이 유정완은 이를 작가가 인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 낙담하기는 아직 이른 것이다. 그래서 축제와 자동차가 일상을 도배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나도 감히 '빌 그레이'를 꿈꿔본다. 꿈꾸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니까.

이현욱

199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

“끼있는 연주자들 전국 공연장과 연결시켰죠”

지난 10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무대에 오른 연주자는 요즘 한창 떠오르는 아티스트인 피아니스트 김태형. 이날 '베토벤 소나타', 프코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등을 연주하는 김씨의 공연을 관객들은 무대 바닥에 깔아놓은 방석 위에 앉아 감상했다. 연주자와 가까이 앉은 관객들은 객석에서 공연을 관람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을 받았다.

9일에는 안은미 컴퍼니 등에서 보컬로도 활동중인 박민희씨와 월드뮤직 그룹 Vann가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가졌다. '비 그치는 소리', 가곡 '버들은', '바람은' 등 전통 소리와 함께 넉넉한 이야기들까지 오고거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콘서트는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 작전'이라는 타이틀로 벌어진 공연이다.

대한민국에 '하우스 콘서트'라는 이름을 알린 건 작곡가 겸 피아노 연주자 박창수씨다. 지난 2002년 7월, 박씨의 연희동 2층 단독주택 마루에서 시작된 하우스 콘서트는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열렸고, 지금까지 317회의 공연을 진행했다. 참여한 아티스트만 1307명, 공연 실황을 담은 음반도 95종이 출판됐다.

집에서 열리는 음악회, 마루바다에서 감상하는 음악회, 연주자와 관람자의 거리가 없는 음악회, 하우스 콘서트는 이후 카페, 음악감상실, 갤러리 등 다양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음악회로 확장됐고, 각 지역에도 하나



박창수씨가 '습격'을 시작한 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뜻'에 동참한 뮤지션들은 가수 강산에, 드러머 김태환, 피아니스트 김태형씨 등 무려 158명에 이른다. 참여한 공연장은 광주문화회관 등 21곳, 공연횟수는 100회에 이른다.



10일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하우스콘서트 대한민국 공연장 습격작전' 김태형 콘서트에 참가한 관객들이 무대 바닥에 앉아 연주를 감상하고 있다.

연주자와 함께 호흡... 무대위 바닥서 관람
뮤지션 159명 21개 공연장서 100회 연주
15일까지 목포·여수 공연...내년 5천회 기획

현재 하우스콘서트는 전국에 300여곳이 생겼지만 금방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지금도 하우스콘서트를 운영하고 싶다면 잘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관된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빠른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오래오래 준비하고 해주시는 사 하는데 다들 마음을 급하게 가지 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못가는 곳이 많은데 그게 가장 안타깝죠. 좋은

연주자들 데리고 공연하고 싶고, 자기 공간이 열릴 때까지 하고 싶은 의도는 좋은데 급하게 서두르면 되지 않아요."

박씨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100회쯤 됐을 때 접어야하나 고민을 했었다며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 하면 절대 오래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예술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알려진 사람들을 초청하려고도 하

는데 새로운 음악인들을 발굴을 해내는 작업도 재밌어요. 김선욱·김태환·진보라·조성진 같은 친구들이 신인 시절에 저희 무대에 섰던 친구들인데 지금도 좋은 인연을 맺고 있고, 의리가 생기는지, 굳이 요청을 안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하면 선뜻 참여하더라고요.(웃음)"

그는 내년에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250개 공연팀을 꾸려 전국 100여곳 공연장에서 20회씩 공연을 진행 '5000회 공연'을 벌일 계획이다.

목포·여수 일정은 프리뮤직 페스티벌 홈페이지(freemusicfestival.net)에서 자세한 일정과 참여 예술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1-270-8484(목포), 061-690-7103(여수).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개나리'

자연 속 넘치는 여백

박태후 개인전 31일까지 나인갤러리

나인갤러리가 옛 인쇄미술관 자리로 옮겨 새롭게 개관 기념전을 마련했다.

나인갤러리는 12일부터 31일까지 문인화가 박태후씨의 '자연 속으로'를 주제로 한 개인전을 연다.

나인갤러리는 지역 대표 상업 화랑으로, 지난 1994년 광주시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에 문을 연 뒤 꾸준한

기획·초대전을 추진하는 한편, 지역에서는 드물게 전속작가제를 도입해 중국, 일본, 홍콩 등지의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장동으로 옮긴 뒤 열리는 첫 전시에서는 삶의 주변에서 토속적 소재를 찾아 화선지와 먹, 붓에 약간의 채색만을 곁들인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약한 20여점으로 채워진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전깃줄 위에 참새가 줄지어 앉아있는 '참새'연작도 빼지지 않았다. 기교 대신, 풍성한 여백이 도드라지는 작품에서는 정갈함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최대한 작게 그리면서 과감한 여백을 주는 대담한 붓질은 한국화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하얀색 화선지 위에 검은 먹빛과 파란색이 묘한 조화를 이루거나 힘있는 먹의 번짐과 스며들음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도 출품됐다. 30여점의 아트 상품도 판매된다. 문의 062-232-2328.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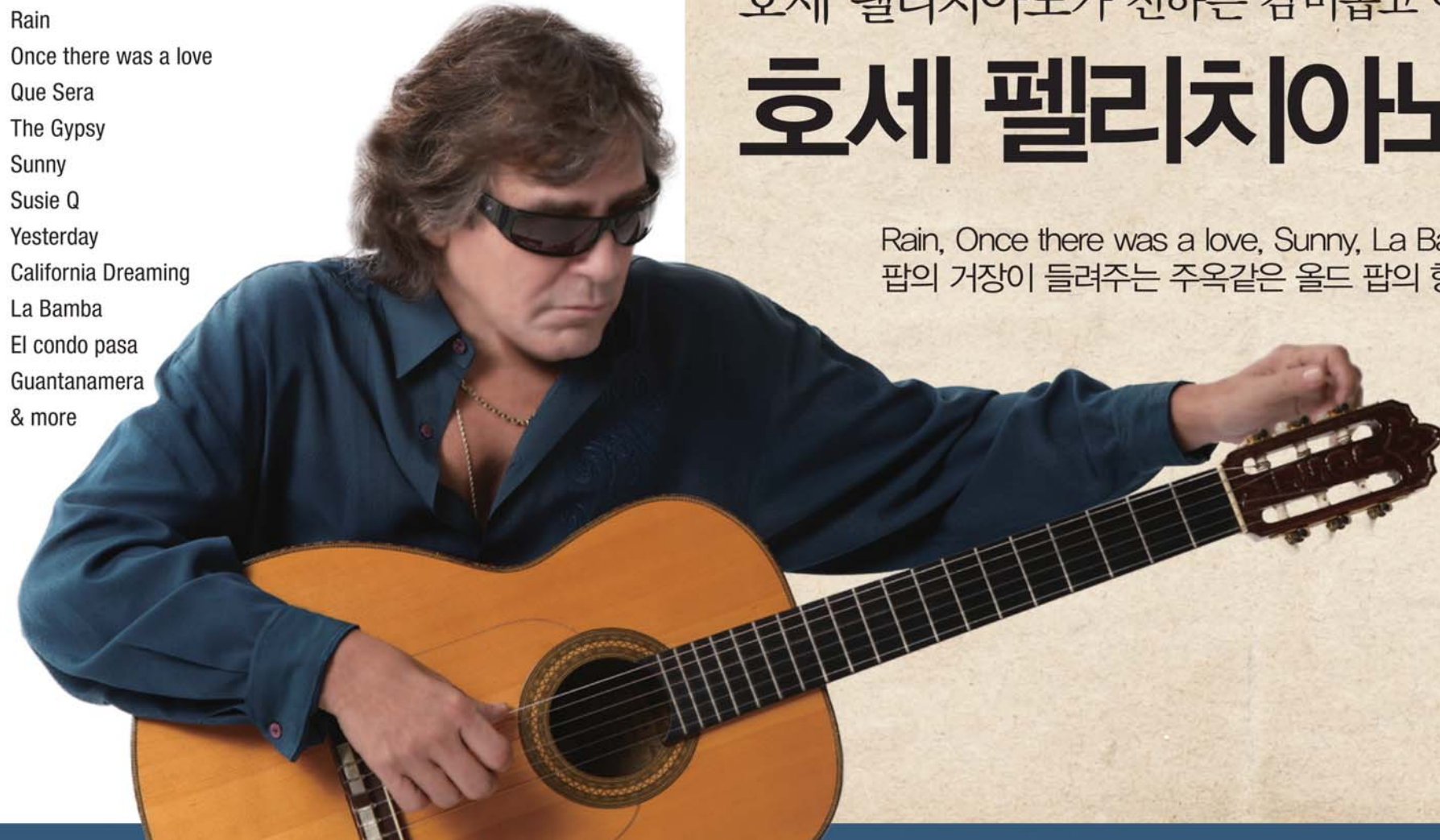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앙도서관 상반기 이용 1위

국립중앙도서관은 2012년 상반기 도서 이용 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이어 김난도 예세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은결의 '해를 품은 달', 스티그 라르손의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박범신의 '은교',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가 각각 2·8·10·19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웃음'도 포함됐다.

광주 CBS 50주년 기념

- Rain
- Once there was a love
- Que Sera
- The Gypsy
- Sunny
- Susie Q
- Yesterday
- California Dreaming
- La Bamba
- El condo pasa
- Guantanamera
- & more



팝의 전설을 만나다! 그레미 어워드 8회 수상에 빛나는
호세 펠리치아노가 전하는 감미롭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호세 펠리치아노 내한공연

Rain, Once there was a love, Sunny, La Bamba 등
팝의 거장이 들려주는 주옥같은 올드 팝의 향연

JOSÉ FELICIANO
Live in Gwangju

일시 : 2012. 9.11(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주최 : 광주 CBS JOY 커뮤니케이션

티켓 : 인터파크, 티켓링크, 광주CBS(062-376-4488)
VIP석 120,000원 R석 100,000원 S석 80,000원